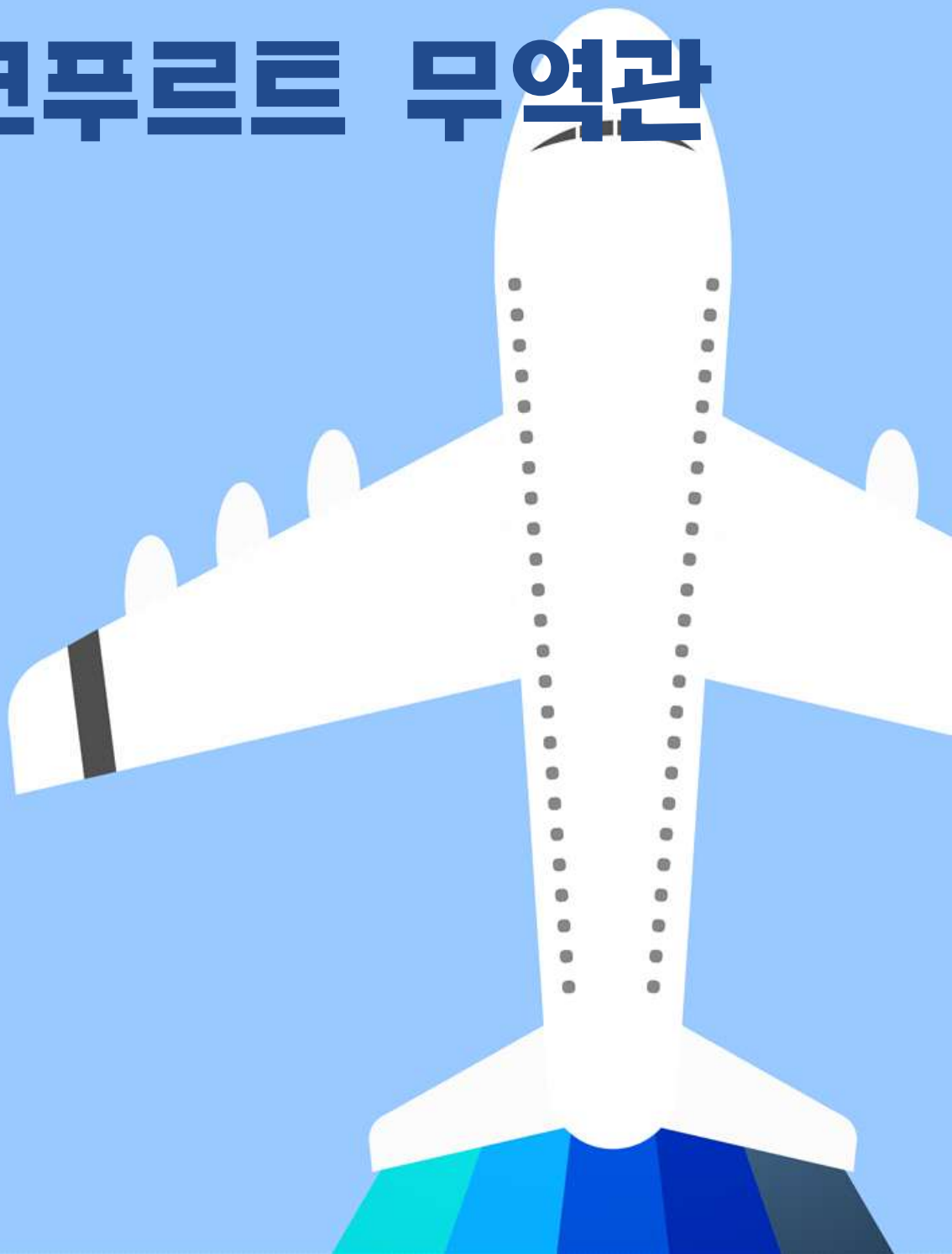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Frankfu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독일 개황	3
II. 경제·교역동향	5
III. 투자 동향	13
IV. 지역 현안	15
V.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	25
VI. 무역관 정보	32
VII. 현지 주요 연락처 및 식당	33

I. 독일 개황

1. 국가개요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명 :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 치	서유럽
면 적	357,683km ²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23.12.31. 기준, '24.10. 발표)
기 후	온대성, 연간 월평균 1.5°~18.7° ('23년 연평균 10.6°)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461만 명 (독일인 84.8%, 외국인 15.2%, '23년 기준, '24.6. 발표 기준)
주요 도시	Berlin(388만 명), Hamburg(191만 명), Muenchen(159만 명) Koeln(110만 명), Frankfurt(77만 명) ('23.12.31. 기준, 뮌헨은 '24.3.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24%), 개신교(22%), 이슬람교(4%), 무교(46%), 기타(4%) (자료원 : Fowid, '23.12.31. 기준)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Frank-Walter Steinmeier :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일 : '17.3.19, 재임 : '22.2.13, 임기 : 5 년 ○ 수상 Olaf Scholz (사민당(S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임일 : '21.12.8, (단독 과반수 획득 실패, '24.11.6.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및 자민당(FDP)과의 신호등 연정 해체, '24.12.16. 총리 신임투표에 이어 '24.2.23. 조기 총선 시행 예정)

2. 경제지표

명목 GDP	4조 1,856억 유로('23년) ('24.10. 수정 발표 수치)
1인당 명목 GDP	48,750유로('23년) ('24.10. 수정 발표 수치)
실질 경제 성장률	-0.3%('23년, '24.10. 수정 발표 수치)
실업률	5.7%('23년 평균), 6.0%('24.10. 당월)
물가 상승률	5.9%('23년 평균), 2.0%('24.10. 당월)
화폐 단위	유로(Euro)
환율	1유로 ≒ 1,472.97원('24.11.18. 기준)
총 설비 투자	9,042억 유로('23년 +4.9%(명목 기준)/ -1.2%(실질 기준))
국내 총 소비(민간 정부)	2조 9,782억 유로('23년 +5.0%(명목 기준)/ -1.1%(실질 기준))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1조 5,621억 유로(-1.4%(명목 기준)/ -0.3%(실질 기준)) - 수입 : 1조 3,525억 유로(-12.4%(명목 기준)/ -0.6%(실질 기준)) ○ 202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1조 1,755억 유로(-1.0%(명목 기준)) - 수입 : 9,882억 유로(-4.2%(명목 기준)) <p>* 독일 연방통계청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24.11. 잠정 발표)</p>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 항공기, 전자집적회로,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기타기계류,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원심분리기·액체용·기체용 여과기·청정기 ○ 수입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의약품,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축전지, 자동자료처리기계

* 주 : 독일 연방통계청의 품목별 세부 통계는 순위가 부재한 관계로 Global Trade Atlas 통계 활용, 단, 독일 정부의 통계와 세부 통계 간 최신 발표 시점에 차이가 있음.

II. 경제·교역동향

1. 독일 경제 현황 및 전망

□ 독일 정부, 예상했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고용안정과 인플레이션 하락세에도 '24년 GDP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전망, '25년에야 +1.1% 경제회복 기대

○ (경기 현황) '24.1~2분기 물가 상승세 둔화와 더불어 소비 지표 및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대내외 수주감소와 수출입 및 생산·투자 부진 지속으로 경기 개선 지연, 부진한 성장 흐름 속 '24년 역성장 예상

- '23. 독일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마·중 경쟁, 부진한 세계 경제, 중간재 부족,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경기 하방 요인 속에서도 우려됐던 경기침체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며, 생산, 소비 부문 기대감 상승

*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공급 병목현상 완화와 더불어 '23년 상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고조

-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러-우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해외 수주감소, 高인플레이션 지속과 더불어 생산 및 소비 둔화 등 경기 약세 국면 지속,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며, '23년 독일 경제는 -0.3%로 마이너스 성장 기록

- '24년에도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질소득 증가 및 금리 하락 등의 긍정적 영향 속에서도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리스크, 높은 관료적 부담으로 인해 투자 지연 및 산업·소비 모두 둔화하며 2년 연속 경제 위축 전망

* '24.10. 국제통화기금(IMF)도 '24년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4.7. +0.2% → 0.0%, '25년은 +1.3% → 0.8%로 하향 조정, 이로써 독일은 주요 G7 선진국 중 가장 약한 성장세 전망

** 美 +2.2% 中 +4.5%, 日 +1.1, 佛 +1.1%, 英 +1.5% (자료원 : '24.10. IMF)

- 에너지 가격은 다소 안정세로 회복되며, '24년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상승 폭 감소*, 그러나 식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이 지속되며, 평균 인플레이션을 상회

* '24.1. +2.9% → '24.3. +2.2% → '24.5. +2.4% → '24.7. +2.3% → '24.9. +1.6% → '24.10. +2.0%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 (전망) 독일 정부는 최근 공식 가을 전망에서 '24년 GDP 성장 전망을 기존 +0.2%('24.2.21.) → +0.3%('24.4.24.) → -0.2%로 하향 조정 발표, '25년은 기존 +1.8% → +1.0% → +1.1%로 소폭 상향 조정하며 '25년 소폭 성장 전망 ('24.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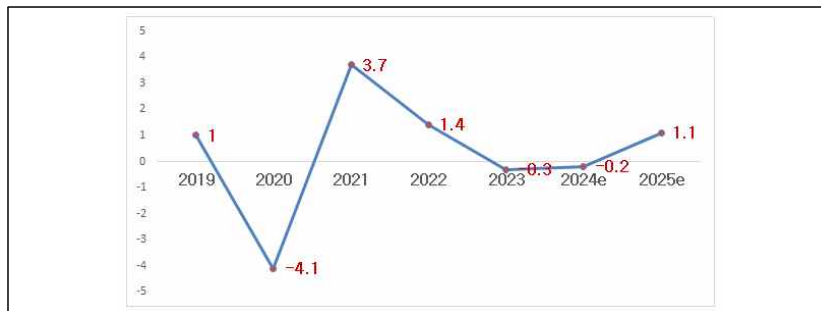
- '25년 초 민간 소비 회복, 해외 공산품 수요 회복, 투자 회복 등으로 다시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 특히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경기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 독일 정부는 '25년 민간 소비 +2.0%, 설비투자 +1.4%, 수출 +1.7%, 수입 +1.9% 등 완만한 회복세 기대 ('24.10.9. 독일 정부 가을 전망(실질 수치) 기준)
-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공식 가을 전망에서 現 위기에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세금 감면, 근로 인센티브 도입 및 전가 가격 인하' 등을 포함하는 신호등 정부의 '성장 패키지'*를 언급하며 '25년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 ('24.10.9.)
- * 독일 정부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촉진, 관료주의 감축, 근로 인센티브 및 전문인력 확대, 300억 유로 규모의 조세 감면 조치' 등 총 49개 개별 조치를 포함한 '성장 이니셔티브' 승인, '25년 약 +0.5% 추가 경제성장 견인 예상 ('24.7.17.)
- (생산) 주요 기간 산업 생산량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은 난망, '24년 기계 산업 회복 난망, 자동차 역시 캐즘 현상에 따른 소비자 수요 감소로 전망 불투명
- * (기계) '24년 생산량(실질 기준) △8%^f, 독일 기계및설비제조협회(VDMA)는 글로벌 무역 약화와 투자 부족으로 인해 기계 수요 약세 전망, 고객의 불확실성 증가로 추가 투자와 수주 저해, 추세 반전은 '25년이 되어서야 시작 예상 (자료원 : '24.9.9. 독일 기계및설비제조협회(VDMA))
- * (자동차)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24년 280만 대 판매(-1%^f) 전망,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19년 보다 약 1/4 적은 수치, '24년 독일 내 생산 410만 대('23년 대비 0%), 해외 생산량 1,060만 대('23년 대비 +4%) 전망 (자료원 : '24.7.3.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독일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GDP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e	2025 ^e
성장률(%)	1.0	-4.1	3.7	1.4	-0.3	-0.2	1.1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24.9. 수정 발표 기준), 독일 정부(독일 정부 가을 공식 전망 수치('24.10.9.))

- (소비) 물가 상승세 둔화 및 임금 상승, 실질 소득 증가 기대와 더불어 '24년 +2.6%^f로 경기 회복세 견인 전망, '25년에도 +2.0%^f의 완만한 증가세 예상
- (물가) 러-우 사태 이래 주 상승 요인이었던 에너지 가격 및 식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서비스 가격상승이 주요인으로 부각, '24년은 +2.2%^f, '25년 +2.0%^f '25년 +2.0%로 ECB 목표치 2.0%에 부합하며 안정권 진입 전망

- **(내수 수요)**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과 소비 회복세와 더불어 내수 수요도 소폭 회복세 기대 ('24년 +2.8%, '25년 +2.0% 전망, 실질 기준)
- **(고용)** 러-우 사태 이래 높은 인플레이션, 소비·생산 및 경기둔화 등 경기 하방 요인에도 '23년 독일 실업률은 5.7%로 전년 5.3% 대비 소폭 상승 (자료원 : '24.1.3. 독일 연방노동청(BA))
 - 독일 연방노동청의 날레스(Andrea Nahles) 회장은 “'23년 취약한 경제가 고용시장에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편”이라고 밝힘 (자료원 : '24.1.3. 독일 연방노동청(BA))
 - '24.10. 실업률은 6.0%로 전월과 동일하나,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 (+0.3%p), 전월 대비 16,000명 감소(계절 조정 통계로는 27,000명 증가)한 약 279만 명 기록
 - * 독일 연방노동청의 날레스(Andrea Nahles) 회장은 “올가을 고용시장의 회복세는 대체로 실현되지 않았으나, 전월과 마찬가지로 감소 폭은 매우 작았다”라고 전함 (자료원 : 독일 연방노동청(BA))
 - '24년 실업률은 경기침체 등의 우려로 6.0%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5년에는 정부의 ‘성장 이니셔티브’ 조치를 통해 고용시장 역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하며 실업률은 5.9%로 소폭 하락 전망,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공장 폐쇄 및 감원 조치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24.10.9. 독일 정부 및 최근 언론)

□ ECB, '24.10. 올들어 세 번째 금리인하 시행

- **(통화정책 완화)** 유럽중앙은행(ECB)은 '24년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를 인하(3.40%)하며 통화정책 전환 기조 가속화 ('24.10.17.)
 - '24.10.17. ECB는 인플레이션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를 고려해 올해 들어 '24.6.6.과 '24.9.12.에 이어 금리인하 발표
 - * 기록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의 금리 인상 압박 증가와 함께 '22.7.21. 유럽중앙은행(ECB)은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0%에서 +0.5%p 인상한 데 이어, '23.9.14.까지 총 열 차례 연속 금리 인상 단행, 지난 '24.6. ECB는 '19년 이래 처음으로 주요 정책금리를 각각 0.25%p 인하 (자료원 : ECB)
 - 기준금리(4.25% → 3.65% → 3.40%), 한계대출금리(4.50% → 3.90% → 3.65%) 및 수신금리(3.75% → 3.50% → 3.25%) 등 주요 정책금리를 각각 0.25%p 인하
 - *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은 '24.8. +2.2% → '24.9. +1.7%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 이후 '24.10. 서비스 및 식품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다시 +2%로 상승 (자료원 : '24.10.17. Tagesschau)
 - ECB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총재는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않았으나, 금리인하는 올바른 행보이고, 계속해서 데이터 의존적 접근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ECB는 향후 정책 금리를 기존과 같이 회의 시점마다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할 예정 (자료원 : '24.10.17. ECB 및 SZ)
 - * 도이처은행(Deutsche Bank)의 ECB 담당자 발(Mark Wall)은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오늘의 결정이 통화정책의 보다 신속한 정상화를 향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힘 ('24.10.18. Handelsblatt)

2. 독일의 교역동향

* 통계 기준(달러화)을 위시해 통계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GTA 수출입 증감률은 독일연방통계청 발표 수치와는 편차 有

□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 **(수출국)** '23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 브렉시트 이후 교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영국은 전년에 이어 8위 유지
 - 중국(4위), 오스트리아(7위), 스위스(9위) 등을 제외한 모든 10대 수출국이 모두 완만한 증가세 기록, 對 영국 수출이 +9.4%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對 중국 수출은 상반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6.4% 감소
 - 한국은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한 18대 수출국으로 對 한국 수출 규모는 22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4%로 소폭의 감소세 시현
- **(수출품목)** '23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기타항공기 등이며,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순위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완화 영향 속 의약품의 수출이 -10%로 감소하였고, 기타항공기가 +18.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 외에도 수출 1위 및 3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각각 +13.7%, +8.1%를 기록하며 양호한 증가세 시현

<독일의 5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676,462	2.8	-	1,719,244	2.6
1	자동차	155,951	11.6	자동차	177,315	13.7
2	의약품	74,257	15.5	의약품	66,830	-10.0
3	자동차부품	61,453	-4.7	자동차부품	66,425	8.1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4,407	-7.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파·면역물품	45,522	2.5
5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25,382	67.9	기타항공기	26,423	18.6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및 수입품목

- (수입국) '23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네덜란드, 미국,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체코가 벨기에를 제치고 예년과 같이 수입 7위국으로 부상, 브렉시트 이후 對 영국 수입은 '22년 +3.5% 상승세 이후 다시 -6.4%의 하락세를 나타내며, 영국은 수입국 12위 → 13위로 하락
- '23년 對 한국 수입은 147억 달러를 기록하며 +4.3%의 증가세 기록, 순위는 전년 28위 → 25위로 상승하며 예년의 입지 회복,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증가(0.9% → 1.0%)
- (수입품목) '23년 독일 수입품목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전년도 높은 상승세(+54.6%)를 나타냈던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대신 예년의 주요 수입품목이 다시 강세, 이에 5대 수입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팬데믹 완화로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과 전년도 기저 효과로 석유 및 역청유(원유)가 전년 대비 각각 -27%, -12.9% 감소

<독일의 5대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2022년			2023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582,721	11.3	-	1,475,987	-6.7
1	석유가스 및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73,384	54.6	자동차	78,519	14.6
2	자동차	68,516	1.5	자동차부품	46,802	17.4
3	석유 및 역청유(원유)	63,035	56.6	석유 및 역청유(원유)	46,048	-27.0
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40,855	0.4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35,581	-12.9
5	자동차부품	39,857	4.7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32,012	-7.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3. 한국과의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수출) '23년 對 독일 수출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U\$103.2억 기록
 - '22년 이래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수출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농약 및 의약품의 수출 감소세 지속
 - '23년 러-우 사태 및 코로나궂 공급망 병목현상이 완화되며 자동차 부품 수출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에 편승한 전기차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
 - 반면, 반도체 업황 부진 및 가격 하락세에 따른 반도체 수출 및 독일 및 유럽 내 생산 확대 증가 추세로 건전자축전지 수출이 다소 부진
 - '24.9. 누계 기준 對 독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약 U\$71억을 기록하며 다소 부진한 편이나, 농약 및 의약품, 선박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수요가 성장세 견인
- (수입) '23년 對 독일 수입은 전년 대비 미미한 감소세(0.0%)를 나타내며 U\$236억 기록
 -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
 - '24.9.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U\$167억을 기록,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반도체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자동차와 원동기 및 펌프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소비자 및 산업 수요 둔화 영향 속 감소세 시현
- (무역수지) '23년 무역수지는 총 U\$-133억으로 지난 '15년 이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소폭 감소
 - '24.9. 누계 무역수지는 수입 감소세와 더불어 약 U\$-97억으로 예년 대비 소폭 낮은 수준

<한-독일 교역동향>

(단위 : U\$백만,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20	9,576	10.3	20,681	3.7	-11,105
2021	11,110	16.0	21,996	6.4	-10,886
2022	10,068	-9.4	23,615	7.4	-13,547
2023	10,317	2.5	23,611	0.0	-13,294
2024.9	7,093	-11.2	16,747	-5.8	-9,654

자료원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 '23년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품 병목현상은 '23.4.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와 더불어 소폭 완화되었으나, 독일 인플레이션 상승세 지속 및 소비·생산 둔화 등에 따른 경기둔화 속 수입 수요 감소 영향과 더불어 한국의 對 독일 수출은 자동차(+62.3%), 선박 및 부품(+10,109%), 고무제품(+34.7%) 등의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소폭의 증가세에 그침
 -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22년 말부터 스마트폰 및 가전 등 하방 산업수요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부진 및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으로 감소 폭 확대(-21.6%)
 -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20년 및 '21년 수출 1위로 부상했던 농약 및 의약품 역시 전년에 이어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33.5% 감소세로 수출 5위 기록
 - 한편, 선박 및 부품은 '21년 100%의 감소세 및 '22년 수출이 전무한 데 따른 기저효과, 친환경 선박 부품 수요 확대 추세와 더불어 +10,109%의 급증세 실현
 - '24.9. 누계 기준 -11.2%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농약 및 의약품(+39%), 무선통신기기(+36.2%), 선박 및 부품(+32%), 반도체(+30.2%),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선전 중
 - 자동차와 건전지 및 축전지의 경우 '23.12. 이래 현지 보조금 지급 종료*에 따른 수요 감소세와 역내 수급 확대 등의 요인 하 각각 -58.2%, -68.2% 등 높은 감소세 기록
- * 독일 정부는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응해 영업용 전기차 구매 또는 사용 시 세금 지원 확대 시행 ('24.9.4.), 이후 '24.10. 당월 독일 자동차 시장은 다시 상승세(+6%)로 전환돼 향후 한국의 대독일 수출에도 귀추 주목

<對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 U\$백만, %)

순 위	품목	2023년		순 위	품목	2024년 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10,317	2.5		총 계	7,093	-11.2
1	자동차	2,802	62.3	1	자동차	938	-58.2
2	반도체	787	-21.6	2	반도체	717	30.2
3	자동차부품	581	6.9	3	선박 및 부품	667	32.0
4	선박 및 부품	506	10,108.6	4	농약 및 의약품	552	39.0
5	농약 및 의약품	601	-33.5	5	자동차부품	449	0.8
6	무선통신기기	471	-24.3	6	무선통신기기	440	36.2
7	합성수지	280	-11.6	7	고무제품	293	50.8
8	고무제품	264	34.7	8	합성수지	287	38.6
9	건전지 및 축전지	681	-34.5	9	건전지 및 축전지	178	-68.2
10	기계요소	186	-8.0	10	기계요소	148	7.3

자료원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23년 수입 1, 2위인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반도체가 각각 -0.8%, -27.1%, -9.4%를 기록하며 부진한 가운데 그 외 품목군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
 -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전년의 증가세(+8.5%)에 이어 +36.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21년 8위 → '22년 6위 → '23년 3위로 상승
 - 한편, 전년도 감소세를 나타냈던 원동기 및 펌프(-9.7%), 기계요소(-4.2%), 계측제어분석기(-3.6%) 등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각각 +20.9%, +15.4%, +9.9%를 나타내며 증가세로 전환
- '24.9. 누계 기준으로는 국내 산업생산 및 경기둔화의 영향 속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10대 품목이 대체로 높은 감소세 기록
 - 부진한 국내 산업 수요 속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반도체 수입이 +35%, +17.1%를 기록하며 한국의 대독일 수입 견인
 - 수입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농약 및 의약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수입 감소세의 주요인으로 지목
 - 이 외, 주요 산업 품목군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기계계측제어분석기와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기계요소 등의 경우 소폭의 증가세 기록

<對독일 10대 수입품목>

(단위 : U\$백만, %)

순위	품목	2023년		순위	품목	2024년 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23,611	0.0		총 계	16,747	-5.8
1	자동차	6,584	-0.8	1	자동차	4,229	-15.6
2	농약 및 의약품	1,822	-27.1	2	농약 및 의약품	1,291	-6.9
3	반도체제조용장비	921	36.2	3	반도체제조용장비	911	35.0
4	반도체	1,009	-9.4	4	반도체	829	17.1
5	계측제어분석기	888	9.9	5	계측제어분석기	646	2.5
6	원동기 및 펌프	749	20.9	6	자동차부품	581	1.2
7	기계요소	694	15.4	7	기계요소	511	0.9
8	자동차부품	733	5.1	8	원동기 및 펌프	486	-14.3
9	산업용 전기기기	664	10.1	9	산업용 전기기기	475	-8.5
10	전자응용기기	448	0.6	10	정밀화학원료	313	1.1

자료원 : K-stat

III. 투자 동향

□ 독일의 對 한국 투자

○ '23년 대한 투자 현황

- **(꾸준한 대한 투자 유지)** 독일의 對 한국 투자는 매년 50건 내외, 5억 달러 내외의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23년 투자 규모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독일 Merck사의 272백만 달러 대한 투자가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통계상 미반영된 결과
- **(바이오·화학 산업 투자 확대)** '23년 바이오 제약·화학 부문 투자 확대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투자는 꾸준히 지속
- 韓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 다각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
 - * '23년 주요 투자 사례 : M사 바이오 공정시설 관련 2.7억 달러, S사 바이오 제약설비 관련 2.300만 달러 ('22년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추가 투자), C사 미래차 부품 공장 확장 관련 4.300만 달러, V사 전동화 부품 생산설비 확장 관련 8.000만 달러, B사 국내 기업 H사와 특수계면활성제 생산 관련 합작 법인 투자, S사 국내 기업 D사와 풍력발전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4년 대한 투자 현황

- '24년 3분기까지 33건의 투자 신고 및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

<최근 5개년 독일의 대한 투자 추이 (연도별 투자신고 기준)>

(단위 : US\$백만, 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신고금액	517	2,836 (560*)	538	206 (459**)	129
신고건수	51	50	60	47	33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딜리버리 히어로 22억 7,600만 달러 대규모 대한 투자 제외

** Merck사의 2억 7,200만 달러 대한 투자 포함

○ 대한 투자 전망

- **(독일 경제 역성장으로 인한 투자 둔화 전망)** 에너지 가격 급등, 기록적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인한 '23년 경제 역성장(-0.3%)에 이은 '24년 역성장 전망(-0.2%)의 여파로 독일 기업의 전반적 투자 규모 축소
- **(대중국 디리스팅 전략)** 독일 정부는 대중 경제의존도 낮추기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팅' 전략을 공식화, 반면, 독일기업은 독일 정부의 디리스팅 행보와 달리 꾸준히 중국

투자 감행.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내 독일 기업의 투자 대상 안전장치 강화, 중국의 독일 주요 인프라 투자 감독 강화 예고

- (ASEAN 국가들과 투자유치 경쟁) 독일 기업은 대한민국 투자의 어려움으로 한국의 내수시장 감소, 인건비 상승, 공급망 확보 등을 예시로 들. 이로 인해 중국을 대신할 대체 투자처로 내수 시장이 크거나, 인건비가 싼 강점이 있는 다른 ASEAN 국가들을 투자처로 모색할 가능성도 有
- BioNTech의 對 싱가포르 바이오산업 투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시아 국가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

□ 한국의 對 독일 투자

- (투자동향) 우리 기업의 對 독일 투자는 총 83억 달러, 908개의 법인 진출
 - 독일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23년 신규법인 설립 전년 대비 12건 감소하였으나, 투자 금액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
 - '24.2분기까지 신규법인 설립은 20건으로 전년 동기 15건 대비 5건 상승
- (진출유형)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판매 · 영업거점 구축이 주요 목적
 - 유럽 최대 내수시장, 현지 및 한국인 고급 인력 수급 용이성, 한국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교통·물류 편리성으로 독일은 판매 및 서비스거점으로서의 강점 보유
- (진출업종) 자동차부품·화학·기계·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 중점 진출
 - 삼성,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인근에 유럽법인을 설립하여 유럽 시장 성공적 진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 향상
 - * 독일 지상사 협회인 재독한국경제인협회(Koebag) 프랑크푸르트 소재
- (최근트렌드) 디지털 및 그린 전환에 따른 독일 내 공급망 재편 가속 → 유럽 역내 GVC 구축 및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독일 투자 진출 지속
 - 독일 정부의 배터리셀 유럽 생산허브 구축 목표('30년까지 유럽 전체 생산량의 25% 점유) 등 디지털·그린 전환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급망 재편 분야 투자 진출 지속
 - * '23년 삼성물산社와 성일하이텍社의 합작법인 독일 튀링겐주 게라(Gera)에 배터리 재활용공장 설립 투자
 -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독일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진출도 꾸준히 발생
 - ☞ '20년 7건, '21년 3건, '22년 12건, '23년 6건, '24년 2분기 3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독일 투자 추이 (연도별 해외직접투자통계 기준)>

(단위 : 억 달러,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년 2분기	누계('80~'24.2Q)
투자금액	7.3	3.5	5.1	5.1	2.1	82.9
신규법인	40	32	45	34	20	90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IV. 지역 현안

□ '24.11.6. 독일 신호등 연정 해체와 더불어, '24.2.23. 조기 총선 시행 예정

- '24.11.6. 저녁 독일 솔츠(Olaf Scholz)(사민당(SPD)) 총리는 자민당(FDP) 소속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부 장관의 즉각 해임과 신호등 연정 종료를 선언함과 동시에 총리 신임투표 요청
 - **(주요 배경)** 독일 예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심화와 더불어 특히 최근 솔츠 총리의 부채 제동 장치 중단 요청에 대한 거부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 솔츠 총리, 린드너 재무부 장관 및 하베크 부총리/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여러 차례의 회담에서 경제 및 예산 정책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시도했으나 무산
- 독일은 現 기민연합/야당 대표 메르츠(Friedrich Merz)와 사민당 대표 뢰체니히(Rolf Mützenich)의 동의에 따라 '24.12.16. 연방의회의 총리 신임투표 표결에 이어 애초 '25.9. 예정이던 총선을 '24.2.23. 조기 시행할 예정
 - 독일 연방 대통령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이러한 여·야당의 일정을 승인
- 독일 정계에서는 명확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 있는 반면, 선거에서 총리 후보로 재출마하려는 솔츠의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有
 - * '24.11.8.~11.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기민(CDU)/기사연합(CSU) 32.5%, 독일대안당(AfD) 19.5%, 사민당(SPD) 15.5%,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11.5%, 자민당(FDP) 5%,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7.0%, 좌파당(Linke) 3.5%, 기타 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원 : '24.11.13. Handelsblatt, Frankfurter Rundschau 등)

□ 정부·산업의 전방위 탈탄소 노력 확산 및 공공투자 집행 본격화

- **(그린)** EU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동참을 위한 제반 조치 시행
 - * 『Fit for 55('21.7.)』: '50년 기후 중립,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90년 대비)
- **(독일 정책 목표)** ('23.4.) 脫원전 달성 이후 (~'30년) CO₂ '90년 대비 65% 감축·(~'38년) 脫석탄·(~'45년) 기후 중립
 - * '24~'27년 투자 규모: €2,118억(건물 리모델링·수소산업 육성·전기차·철도 인프라 등 기후 전환기금(KTF) 예산** 배정)
 - ** '24.1.22.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3.11. 연방헌법재판소의 예산 운용 위헌 판결(예산 600억 유로 삭감)로 중단됐던 기후전환기금 지원 신청 재개 발표, 그러나 예산 공백으로 일부 예산 삭감 조치는 불가피
- **(제반 조치)** 신속한 인프라 확장, 기후 보호법 조정, 난방시스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 보호 및 계획 가속화를 위한 현대화 패키지' 결의안 발표 최종 합의('23.3.28.) 및 기후보호법

- 개정('24.4.26.) 신건물에너지법(GEG) 개정안('23.9.8. 연방의회 승인 및 '24.1.1. 발효), 기후 중립 생산 전환을 위한 기후보호계약(CCFD, 일명 탄소차액계약제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발족('23.6.) 및 제1차 입찰 시행('24.3.12.)을 통해 15개 기업에 낙찰 및 첫 번째 기후 보호 계약 체결 완료('24.10.15.), '24.7.29.~9.30. 2차 입찰 진행 (자료원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 **(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독일 정부는 '45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 확대 전략 발표('23.7.26.)에 이어 22개 추가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으로 수소 프로젝트 시행 공식화** ('24.7.15.)
 - * '30년까지 수전해 시설을 두 배 확대, '28년까지 최소 1,800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 설치 추진
 - ** 이는 '24.2. EU의 승인에 따른 IPCEI(유럽 공동관심 프로젝트) 'Hy2Infra' 프로젝트 차원에서 지원되며, 독일은 총 79억 유로(정부 46억 유로+기업 33억 유로) 투자 예정
 - **(수소 수입 전략)** 독일 내각, 수소 및 수소 파생물 수입 전략 결정 ('24.7.24.)
 - * 독일 정부는 '30년까지 수소 및 그 파생물에 대한 국가 수요를 총 95~130TWh로 추산, 이중 약 50~70%(45~90TWh)는 해외에서 수입 필요 예상, '30년 이후에도 수입 비중 지속 증가 전망
 - **(산업계)** 탈탄소화 과제 속 철강 및 기계산업계,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에 적극 투자
 - * 잘츠기터(Salzgitter/ 철강), 튀센크루프(Thyssenkrupp/ 철강),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철강), 도이체 포스트(Deutsche Post) DHL/ 우편·물류) DB 쉐커(Schenker/ 물류) 등 탈탄소 선도
- **(디지털)**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 산업별 DX(Digital Transformation)·5G·클라우드 등 인프라 기반 구축 등
 - * '22년 총 27개 EU 회원국 중 독일의 디지털 역량 지수: 13위 ('22년까지 발표)
 - 범정부 차원의 협업으로 '25년까지 공공행정, 의료시설, 교육 등 디지털화 추진 및 18개의 세부 프로젝트(Leuchtturmprojekte)* 추진
 - * △데이터, △디지털 신분증, △온라인 환자 관리 시스템, △국가 온라인 평생 교육 플랫폼, △농촌 지속 가능 디지털화, △AI 분야 스타트업 지원 등
- **(공공투자)** 지속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인 對유럽 투자를 위한 EU 경제회복기금(RRF) 자금 전도 본격화 기대
- 대독일 RRF 총지원금은 323억 유로, 이 중 보조금이 303억 유로로 대다수 차지, 독일 RRF 계획의 49.5%가 기후 목표(그린전환) 지원, 47.5%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소요될 예정
 - * '24.11. 기준 62억 5,000만 유로(할당된 총보조금의 약 20.6%)의 보조금 지급 완료, RRF 규정에 따라 국가별 계획은 '26.8.까지 완료되어야 함 (자료원 : EU 집행위 및 EU RRF Scoreboard, '24.11. 발표 기준)
 - **(기대효과)** RRF 기금을 통해 '26년까지 독일 GDP 0.4~0.7% 증가 및 최대 1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

- **(우리 기업 시사점)** 독일 내 녹색 수소 기술을 위시한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디지털 민간·공공 투자 개발 추진과 더불어 프로젝트 협업 및 공동 지분 투자 등을 통한 협업 기회 모색 가능
 - **(수소 생태계 진입 기회)** 그린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 등을 토대로 새로운 수소 생태계 진입 및 신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으로의 정착 본격화 기대
 - 특히 최근 국내에서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대용량 수소저장기술(예: LOHC: 액상 유기수소운반체) 등 신기술 개발 및 제품 상용화로 수소 공급망 생태계 진입을 위한 기회 적극 활용 필요

□ 독일 및 유럽 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편승한 소·부장 시장 본격 공략 기회

- **(반도체 투자유치)** 독일 정부, 독일 내 반도체 생산 입지 구축에 총 200억 유로(약 29.3조 원) 지원 예정 (~'27년)
 - **(배경) (반도체 자립)** 독일 및 EU 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노력에 편승한 시장 진출 기회 모색
 - 유럽 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부재로 해외 파운드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역내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팹' 신축에 총력
 -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공급망 다각화 및 역내 첨단 생산 입지 구축
 - *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독일 드레스덴(Dresden)에 반도체 생산시설 착공('24.8.), 자동차 산업용 칩 생산에 중점 및 '27년부터 생산 개시 예정, 美 인텔(Intel)은 '24년 독일 막데부르크에 반도체 공장 2개 착공(총투자액 약 300억 유로, 3,000개 일자리 창출 예정)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매출 손실과 더불어 긴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장 건설계획을 2년 전격 연기 결정 (자료원 : '24.9.17 Handelsblatt)
 - **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Infineon) 역시, '23.5. 50억 유로(약 7조 원)를 투자, 동부 드레스덴(Dresden)에 신규 생산공장, '26년 이후 전력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 생산 예정
- **(EU 반도체법)** EU 집행위, '30년까지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유치와 '30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 역내 생산(현 약 10%)을 목표로 반도체법 발효('23.9.21), 총 430억 유로 투자
- **(기대효과)** 독일의 반도체 산업 입지 구축에 일대 전기 마련, 독일 및 EU 역내 미래 반도체 산업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진일보
 - * 지원되는 독일 기업은 연구 개발, 생산시설 등에 수백억 달러의 추가 민간 투자를 할 것으로 추정, 동시에 국가 프로젝트는 4,000개 이상의 직접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자료원 : '23.6.8. Handelsblatt)

- **(우리 기업 시사점) (소·부·장 수요)** TSMC, 보쉬(Bosch), 인피니언(Infineon), X-Fab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독일 생산시설 건립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기회 발생 및 소재, 부품, 장비 수요 증가 전망
 - * 현재 독일 내 설립계획에 있는 팹 공장은 EU 반도체법 도입으로 인해 대규모·고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장 내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는 다양한 아이템은 글로벌 기업에게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
 - ** 독일 및 유럽 소재/ 진출 반도체 기업과의 잠재 협업 유망분야 관련 KOTRA [2024 독일 진출전략](#) 및 2025 독일 진출전략 참고 요망
- 유럽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로 직결,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 적기, 유럽 내 파운드리 공장 준공과 관련한 반도체 장비 구매 프로세스 사전 파악 및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수출 기회 발굴이 중요

공급망 위기로 인한 對중국 정책 기조 변화 : 디리스크(Derisking) 전략 및 원자재 공급 지원 강화

- **(공급망 다각화)**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거치며 전반적으로 구조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 저성장, 원자재 문제, 공급망 혼란 및 脫글로벌화 부상
 - 특히 독일은 공급망 혼란 속 쏠림 현상의 위험을 자각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우선
 - *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에너지 위기가 경제·사회 위기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 (자료원 : '22.9.30. Handelsblatt)
 - (위기의식) 최근 독일은 중국의 독일 첨단기술 노하우 획득을 위한 접근에 경계
 - * IW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2년 중국의 독일 라이선스 수입은 '1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특히 '20 ~ '22년까지 약 50% 증가 (자료원 : '23.8.9. Handelsblatt)
- **(對 중국 의존도 감축)** 솔츠(Scholz) 내각,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디리스크' 對 중국 전략 (Strategy on China)' 추진 ('23.7.13.)
 - * '22.11.17. 독일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독일과 EU 역량 강화, 경제 및 정치적 파트너십의 다각화'에 주안점을 둔 대중 전략 초안 발표
 - 솔츠(Olaf Scholz) 총리 및 독일경제·기후보호부는 對 중국 정책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크(Derisking)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
 - 적극적인 원자재 정책 추진, 원자재 파트너십 확장, 대체공급선 확보, 물류 안정화 등 공급망 자립 및 전방위 산업 내 공급망 다각화 노력 경주
 - 獨 5G 인프라 사업(특히 보안) 내 중국 기업 비중 축소 및 배제 본격화 양상, 산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 취지에 동의하나 실제 추진 방안에 신중한 접근 촉구
 - * 독일 내무부는 "독일 이동통신사업자는 늦어도 '26년 말까지 5G 핵심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의

핵심 부품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29년 말까지 5G 모바일 네트워크 액세스 및 전송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의 5G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다른 제조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발표, 아울러 계약에서 합의된 목표의 이행 및 추진을 위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 여기에는 독일 정부 외에도 모든 5G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업계 파트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24.7.11.)

******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일 5G 액세스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50~60%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 (자료원 : '24.11.12. Handelsblatt)

○ **(선제 대응)** 원자재 공급망 안정을 위한 원자재 기금 출범 ('24.9. 시행 본격화)

- '23.7.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24년부터 약 10억 유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원자재 기금 도입 추진
- * '23.8.1.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허가제 시행 등에 의해 높은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우려 증가, 독일산업협회(BDI)에 따르면, 독일에서 수입되는 갈륨의 75%, 게르마늄의 65%가 중국산이며, 바흐터(Matthias Wachter) 부사장은 “중국의 많은 비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는 이미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높다”라고 지적하며 ‘다각화와 새로운 역량 개발의 필요성’ 강조 (자료원 : '23.7.27. Handelsblatt, '24.3.13. Focus)
- (예산) 독일 연방정부의 자기자본을 활용한 원자재 프로젝트 참여와 특별 기후전환기금(KTF)으로 총당 예정, 10억 유로 규모의 원자재 기금 확정 및 출범 (자료: '24.9.19. Handelsblatt)
- EU 역시 '24.5.23.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효,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재활용 촉진 추진
- * 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 원자재 역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핵심·전략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역내 생산 역량 확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요건 등을 강화한 법안
- 해당 법의 일환으로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Strategic Project) 선정을 통해 허가 간소화, 자금조달 등을 지원 예정
- * 아울러 EU는 당초 경쟁 왜곡 및 소비자 이익 훼손 우려로 공공 보조금을 엄격히 통제 중이나,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전향적 입장 선회 중

○ **(우리 기업 영향)** 현재 독일의 對 중국 전략 기조 변화와 더불어 전방위 산업 및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재편 등에 대한 관련 동향 추이 모니터링 필요

*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강경한 방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 독일 경제·기후보호부가 선언한 목표는 인도, 베트남,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와 독일 기업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자료원 : '23.10.19. Deutsche Welle)

□ **'35년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관련 찬반 논쟁 및 속도 조절론 대두**

- EU,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 및 신규 상용차 CO₂ 배출량 규제 강화 ('24.5.14. EU 이사회)

- *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Fit for 55 패키지' 차원에서 자동차(승용차와 3.5~7.5t의 소형상용차)의 CO₂ 배출 규제안에 대한 3자 합의('22.10.) 및 '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최종 결정('23.3.28. EU 27개 회원국 합성연료(E-Fuels) 예외 조항을 포함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최종 승인)
- 이어 '24.4.10. 유럽의회, 대형화물차 및 버스 CO₂ 배출규제(CO₂ 배출량 '19년 대비 '30년 45% → '35년 65% → '40년 90% 감축) 법안 승인 및 '24.5.14. EU 이사회 승인
- 합성연료(E-Fuels) 사용 차량에는 예외적으로 판매를 허용, '24년 가을경까지 E-Fuels 차량의 범위 및 구체적 세부 사항 관련 결정 예정
- *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26년 내연기관의 폐지 재검토 강조, '26년 제로 배출 목표에 대한 재평가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정 가능 예상

○ 독일 자동차협회(VDA), 해당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 VDA 뮐러(Hildegard Müller) 회장은 내연기관 분쟁에서 연방정부와 EU 집행위 간의 합의를 '기후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 "우리는 EU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후 친화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기업별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지
- * (완성차) Porsche·BMW (Tier1) Bosch·ZF·Mahle 등

○ '24년 상반기 '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관련 찬반 논쟁 및 속도 조절론 부상

-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Automobilwoche,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 이슈화 ('24.4.3.)
- **(찬성)** 모빌리티의 탈탄소화는 불가피하며, 경쟁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다음 통합 단계의 생존자가 될 것
- * 전기차 경쟁은 세계적인 현상, 배터리 기술과 생산비용의 핵심 요소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 향후 경쟁력 상실 우려
- **(반대)** EU는 전기차 전환에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무조건 '35년의 기한을 고수하는 것은 산업 정책적으로 불합리
- * EU의 '35년 내연기관차 전면 금지는 공급망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계획으로, 전기차에 대한 낮은 수요는 소비자가 여전히 전환을 주저하고 있음을 방증, 충전 시간·주행거리·충전 인프라·가격이 적당하면 소비자는 스스로 이를 선택할 것
- ** '23년 독일 자동차 시장의 순수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1.4% 증가(시장 점유율 18.4%)하였으나, '24.9. 누계 신규 등록대수 기준 시장 점유율은 13.1%(총 누적 차량 대수 기준으로는 2.9%) (자료원 : 독일연방 도로교통청(KBA))
- *** Automobilwoche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 약화로 '24년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는 '23년(약 52만 대)에 비해 약 1/3 정도 감소한 35만 대 예상, 이는 '21년 수준에 해당 ('24.5.14.)
- 최근 독일 주요 완성차 기업 역시 '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연기 계획 움직임

- (주요 요인) ① '23.12.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종료로 업계 매출 부진 급격 가속화, ② 충전 인프라 충분 여부 등 전기차에 대한 확신 부족, ③ 저가 전기차 모델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30년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급 1,500만 대 달성 목표 적신호

<주요 독일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기업의 전략 현황>

기업명	주요 내용
메르세데스-벤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는 EU 내연기관의 종료 일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 표명,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28년부터 전기차 전환 전략 목표 수정, '30년대까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 칼레니우스는 "'30년까지 순수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Mercedes의 약 50%만 차지할 것이라고 가정하며 구체적인 목표도 수정 발표 ('24.5.8.)
BM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W는 '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지속 생산 계획 • 모델 시리즈의 전기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나, 내연기관차의 종료 일자를 확정하지 않고, 시장이 있는 한 기술을 제공한다는 입장 ('24.4.5.) • CEO 칩제(Oliver Zipse)는 EU의 '내연기관 차량 금지' 시행 방안 관련 제안 및 중국산 전기차 대상 고관세 부과 계획에도 회의적인 의견 표명 ('24.5.8.)
폴크스바겐(V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W는 '35년 내연기관 단계적 폐지 계획 유지 • CEO 블루메(Oliver Blume)는 "E-모빌리티는 짧은 시간 안에 내연기관보다 뛰어난 기술이 될 것"으로 낙관 • 단, 블루메는 '35년 기한을 앞두고 CO₂ 차량 배출량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차를 둔 목표"를 요구 ('24.3.13.)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Automobilwoche

- (우리 기업 영향) 독일 자동차 업계의 탄소 중립 속도 가속화 추세에 따른 전동화 전략에 편승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 판로개척과 동시에 차후 EU의 협의 과정과 입법 절차 예의주시 및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경우에 따라 기존 내연차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및 기회 발굴 필요

❑ EU 지속 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공급망 실사지침,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D) 발효 ('24.7.25.))

- (배경) 환경 및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업의 ESG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제고
- (현황 및 전망) '24.4.24. EU 의회 승인, '24.7.25. 지침 발효(발효 후 적용 기간 3~5년)

- 동 지침은 발효 후 각각 3, 4, 5년에 이르는 전환 기간을 거쳐 적용 예정, EU 회원국은 '26.7.까지 지침 내용을 반영한 자국법 입법 전환 의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에 적용될 예정
- * '23.6.1.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공급망 실사 지침 승인, EU 이사회 최종 승인('24.5.24.)
- ** 독일은 이미 '23.1. 이래 시행 중인 독일 공급망실사법을 CSDDD에 맞게 개정 필요

○ (실사 대상) 업스트림 및 일부 다운스트림(재활용, 폐기 등)

- * 공급망(Value chain) 범위를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로 지정하고 제품 폐기·소비자의 사용 단계의 다운스트림 제외
- ** 세부 정보는 KOTRA 'EU 공급망 실사 지침 Q&A북' 자료 참고 요망

○ (변동 사항) 동 법에 따라 기업은 전체 공급망에 걸쳐 아동 노동 및 착취 금지,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해당 기업의 공급기업에도 해당

- * CSDDD 적용 대상기업의 기후전환계획 채택 의무, EU 집행위는 '27.6.26.까지 기후전환 계획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EU 집행위 초안 대비 고위험 중견기업 삭제, 최종 모기업 및 로열티 수익 기업 추가
- * EU 내 약 5,500개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원래 적용 대상이었던 기업의 1/3에만 적용될 예정 (자료원 : Ver.di), FAZ에 따르면, 기존 초안은 일부 분야에서 약화돼 이 지침 적용을 받게 되는 독일 기업의 수는 독일 공급망실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를 하회
- 또 '책임' 조항 강화로 실사 의무 위반(실사 대응체계 미구축, 문제 발생 시 무대응) 시 벌금 및 민사 책임 부과, 이외, 공공 조달 참여 제한, 기타 행정적 제재 부과도 가능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 내용>

구분		① 순 매출액(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② 고용인원	적용 일자
내 국 내	일반	(전 세계) 1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5,000명 초과	3년 후 (‘27.7.26.)
		(전 세계) 9억 유로 초과 기업 및 최종 모기업	3,000명 초과	4년 후 (‘28.7.26.)
		(전 세계)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1,000명 초과	5년 후 (‘29.7.26.)
	로열티 수익	(전 세계) 8,000만 유로 초과 + 역내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초과 기업 및 최종 모기업	-	5년 후 (‘29.7.26.)
구분		① 순 매출액(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② 고용인원	적용 일자
외 국 외	일반	(EU 역내) 15억 유로 초과 기업 및 그 모기업	-	3년 후 (‘27.7.26.)
		(EU 역내) 9억 유로 초과 기업 및 그 모기업	-	4년 후 (‘28.7.26.)
		(EU 역내)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 및 그 모기업	-	5년 후 (‘29.7.26.)

로열티 수익	(EU 역내) 8,000만 유로 초과 + 역내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초과 기업 및 최종 모기업	-	5년 후 (‘29.7.26.)
-----------	------------------------------------------------------------------------------------	---	---------------------

* 주: ①+②를 충족하는 기업, 최근 2년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침 적용 대상

자료원 :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24.9.26. EU 공급망 실사법(CSDDD) 대응 설명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최종 집계 및 취합 자료

- **(우리 기업 시사점)** 직접 적용 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인권·환경 의무 준수가 해당 기
업에 대한 공급기업(Supplier) 및 협력기업으로서의 주요 조건으로 부상 가능
 - * 국내 약 5,00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영향권 예상 (자료원 : '24.9.26.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 설명회, 대한상의)
 - 차후 EU 내 기업들은 공급업체에 높은 수준의 인권과 환경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에 사전 대비 및 기업 자체 관리 역량 강화 노력 필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
선별 및 이해관계자와의 채널 공유 등 일련의 대응조치 강화 필요
 - * 실사 관련 증빙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필요하며, 역외기업은 관할 당국과 접촉할 수 있는
EU 역내 대리인 지정 필요
 -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작성, 외부 감사나 지속 가능성 관련 인증
취득 등과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윤리 경영 강화에 따른 브랜드의 인식 제고를 위시해 인력 및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
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
 - * KOTRA의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Q&A북('24.7.) 및 중소중견기업 EU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 서비스('24.9~'25.2.), 전문로펌 법률 자문을 위한 KOTRA ESG 글로벌 리걸
브릿지 서비스('24.4분기 상시 접수) 및 대한상의의 ESG 플랫폼 '으쓱(esg.korcham.net)'
등의 지원제도 적극 활용 요망

□ 독일 내 한류 인지도 확산에 따른 K-상품 수출 편승효과

- **(포스트 코로나)** 고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 속 오프라인(Offline) 시장의 귀환 및 소비
양극화를 비롯한 엔데믹 소비문화 확산
 - **(주요 소비 트렌드)** 라이프 스타일의 가치를 재평가해 새로운 소비 패턴 부상, 의식적
소비(예; 지속 가능 소비)·지속가능성·AI·다기능(하이브리드 제품) 선호·공유문화(임대,
구독(Abo)과 재활용) 등 엔데믹 소비문화 보급 확산
 - 특히 고인플레이와 더불어 고품질,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도 상승
 - * 브랜드 품목 대신 저렴한 PB 제품 인기, 독일 소비자의 76%가 쇼핑 시 제품 가격에 주의,
전년 대비 +8% 증가 (자료원 : Bring! Magazine)

- **(소비의 N극화)** 경제 양극화 및 취향 차이 심화로 짬테크와 과시형 소비 또는 저가 제품과 프리미엄 시장이 공존

○ **(한류 마케팅)** 독일 내 한류 소비 증가 추세를 대독일 수출의 기폭제로 활용 기대

- 지역 내 주요 행사에 편승한 한류 마케팅도 활기, 특히 수출 초보기업의 시장 진입에 긍정적 효과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독일 내 한류 인기 확인
 - * '23.6.29~30. KOTRA 한류박람회(KBEE 2023: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3)에서 신규 수출·수출 초보 기업 성과 도출, 10건의 MOU 체결 및 B2B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188억 원 규모의 계약 성사 (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수출 다변화)** 대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콘텐츠 발굴 및 수출 다변화 적기 및 진출 방식 다각화 기회

- * K-뷰티 중심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K-방역으로 확산 → K-패션, K-화장품, K-식품, K-굿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수출 효과 창출
- 다양한 K-콘텐츠 수출화 전략 및 브랜딩 강화, 현지 맞춤형 전략 집중 필요
- **(진출 방식 다각화)** 온라인을 위시해 자체 지점 또는 프랜차이즈 등 진출 방식 및 진출 분야 확대를 위한 분기점 기대
- * 이미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B.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 외에도 K사(K-멀티숍) 및 X사(콘텐츠·키즈 카페)의 시장 진출 및 확장세도 주목
- 또한 아마존*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Zalando(의류 및 잡화류), Douglas(화장품) 등 로컬 온라인 유통망 입점 및 K-뷰티 화장품 전문 포털을 통한 시장 판로개척도 다시 활기
- * KOTRA 해외시장뉴스 '[아마존 독일 입점 가이드: 소비재 독일 진출의 A to Z](#)' 참고, '24.11.초 기준 KOTRA '아마존 독일 마켓플레이스 활용 사업'을 통해 지원기업 수 79개 사, 신규 입점 5개 사, 수출 초보기업 3개 사, 수출액 40만 달러 초과 등의 성과 (자료원 : KOTRA 뮌헨 무역관)
- ** '24년부터 EU의 통합통관코드(UCC) 제170조 2항, 제170조 3항에 따라 EU 내 소재하지 않은 기업이 자체 EORI 번호로 수입 신고하는 관행이 금지되며, 신규 수출 국내기업은 EU 소재 포워더 또는 통관 대리인의 EORI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애로, 이 외에도 '24.12.13.부로 EU의 일반제품 안전지침(GPSD)이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으로 대체·강화되며 라벨링 변경 등의 애로 발생

V.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1. 입국절차 및 공항안내

□ 입국절차

- 한국과 독일 간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 시 비자가 불필요하며,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 無
- 입국 심사대는 EU 시민용 창구와 외국인 창구가 나뉘어 있으며, 입국 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 시 이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됨
- 세관신고서 양식은 없으나 일정 기준의 세관 규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 의무
 - * 비EU 개인 여행자의 항공 및 선박 여행 시 최대 430유로(만 15세 미만 여행자의 경우 최대 175유로)에 해당하는 물품
 - 수하물을 찾은 후 통과 시 일부 여행객의 수하물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함

□ 공항 안내

-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 시 대부분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공항으로 입국하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국내선과 철도로 독일 각지로 연결됨
 - 출국 시 제1청사(Terminal)와 제2청사(Terminal 2)로 분류, 대한항공은 제2청사(Terminal), 아시아나 항공과 Lufthansa는 제1청사에서 착발
- 공항 1청사 지하역에서 도심(프랑크푸르트 중앙역)행 S-Bahn(고속지하철, S8 또는 S9)과 일반 철도를 사용하면 약 15~20분 소요(실제 주행시간은 11분)
 - 또한 공항과 연계된 프랑크푸르트 공항역(Fernbahnhof)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도심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장거리 기차편 이용 가능
 - 아울러 즉시 렌터카 대여도 가능하며, 택시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시내까지 약 40유로 (팁 포함) 소요

□ 생활정보

- 기후
 - 독일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
 -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며, '23년 연평균 기온은 10.6° 기록

- 한국과 유사하게 사계절이 있으나, 한국보다 기온이 대체로 낮으므로 출장 시 좀 더 따뜻한 복장 준비 필요, 봄, 가을, 겨울에 비가 자주 오는 편이며,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교통

- 버스, 트램(Strassenbahn), 지하철(U-Bahn), 고속지하철(S-Bahn) 등이 있으며, 지역별로 종류와 가격이 다르나 대개 약 2~5유로선으로 한국 대비 비싼 편
- * 한국과 같이 한번 티켓을 구매해 지하철에서 버스에 환승 가능하나, 같은 방향이어야 하며,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유의
- (운행시간표) 대부분 지하철/버스 운행시간이 시간대별, 요일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교통 티켓 구매) 일레로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및 각종 기차역 및 정거장 혹은 차 안에 있는 자판기(드물게 배치, 사전 확인 필요)에서 구입 가능
- * 자판기 화면이 독일어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영국 국기를 선택하면 영어로 변경 가능
- (교통티켓 종류 및 비용) 1회용 티켓보다는 1일(24시간) 티켓이나 5인용 그룹용 티켓 구매가 저렴한 편

<프랑크푸르트市 기준 교통이용권 가격>

구분	1명 이동 시	1~5명 이상 시 그룹티켓	참고
종류	일일 대중교통 이용권 (독)Tageskarte	1명 이상 최대 5명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일일 대중교통 이용권 (Gruppentageskarte bis zu 5 Personen) ※ <u>티켓이 1장만 발급되므로 티켓 소지자와 반드시 함께 승차해야 함</u>	· 프랑크푸르트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가능 · IC/EC/ICE 이용불가 · 공항으로 이동 시 프랑크푸르트 이용권에 공항 경로 추가 필요
구간	(지정호텔/ 프랑크푸르트 시내/ 전시장을 포함하는 구간, 공항 제외)		
가격	7.10유로/1명 (2등석 기준)	13.60유로/(최대 5명) (2등석 기준)	

○ 전화

- 일반 대중 전화기를 이용해도 좋으나, 유심칩과 선불(Pre-paid)카드를 구매해 한국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 이 경우 인터넷 데이터도 활용 가능
- 선불카드는 인터넷이나 Deutsche Telekom 계열의 T-Mobile을 비롯하여 Vodafone, e-Plus, O2 등의 지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dm(드럭스토어)이나 Aldi(슈퍼), Lidl(슈퍼)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 (단, 경우에 따라 현지 주소를 요청하므로 유의)

- 출장 또는 여행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 구매해 유럽 내 바로 개통이 가능한 유럽 유심을 미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 환전

- 공항이나 주요 은행지점에서 가능하며, 은행별로 수수료에 차이가 있음
- 코메르츠 은행(Commerzbank),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Sparkasse(저축은행) 등을 활용 가능

○ 전압

- 독일의 전기 규격은 50Hz, 230V로 대부분의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모터가 들어간 일부 제품(세탁기, 냉장고, 헤어드라이어 등)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음
- TV와 비디오 레코더는 우리나라의 NTSC 방식과는 달리 PAL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 불가

○ 시차

- 독일에서는 서머타임(Summer-time)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과 10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 2시에 시간이 조정됨
-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는 서머타임으로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이후에는 8시간 차이

■ 문화적 유의사항

○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계획성, 합리성 추구

- 독일 기업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 미국과 달리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대부분 정장을 입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몇 주 전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등 보수적인 면이 강한 편
- 계획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 충동구매 가능성이 적으며 사실(fact) 위주의 의사결정

○ 목적을 사교보다 더 중요시



- 독일인들은 스몰토크(small talk)가 적은 편이며,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목적 달성 추구
- 미팅 전 상대방의 상품 및 기업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 및 정보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상품을 홍보하기 보다는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 지나친 접대는 지양

- 독일 기업의 윤리경영은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방문 시에 지나친 접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나친 접대는 지양 요망

■ 주요 관광지

<p><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m Ma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푸르트는 헤센주(州)의 라인 지구대 북부 라인강(江)의 지류인 마인강(江) 연변에 있는 상공업도시 ○ 인구 76만 명(2022년 6월 말 기준)의 대도시로, 문호 괴테의 출생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18세기까지는 국왕의 선거 및 대관식이 거행되던 곳 ○ 항공·철도·자동차 교통의 요지이자 독일의 경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주식·상품거래소 소재 	
<p>괴테하우스 (Goethehau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의 작품으로 알려진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생가 (출생: 1749년 8월 28일) • 괴테는 이곳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저술하였으며 1775년 바이마르에 가기까지 이곳에서 생활 • 괴테하우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거의 파괴되었으나 충실히 복원된 독일 복구 기술의 걸작
<p>대성당 (Bartholomaeuskirch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선거와 대관식이 거행되어 일명 카이저 돔(Kaiser-Dom)으로 불리기도 함 • 기공 시기는 1250년 전후이며, 14세기 돔 성당의 단부, 성당의 중랑이 건축되었고, 15세기 천장 및 지붕이 부설되어 완성 • 1867년 화재로 소실된 돔 성당은 이후 대대적인 개축작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p>舊시청사와 뢰머광장 (Roemer & Roemerber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푸르트 전시회 최초 개최지로서 당대에는 독일과 프랑스산 최고급 천·레이스, 양념·향료·서적 등이 전시 • 시청 청사는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들이 Kaiser-Dom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축하연을 개최하던 장소로 유명 • 시청광장 중앙의 유스티아(정의의 샘) 여신상은 1543년에 완공되었으며, 시청 행정에 부정이 없도록 감시하는 의미 • 현재에도 프랑크푸르트시의 공공행사 장소로 활용되며,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에는 public viewing 무대 설치

<p>슈테델 박물관 (Das Staedel Muse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5년 은행가이자 상인인 슈테델(Johann Friedrich Staedel)이 설립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박물관, 마인강변에 위치 • 14세기~현대에 걸쳐 르네상스, 바로크, 클래식 모던에 이르기까지 700년에 걸친 유럽 미술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음 • 총 3,100개의 그림, 660개의 조각, 5,000개 이상의 사진, 10만 개 이상의 그래픽 등 전시, 뒤러, 보티첼리, 렘브란트, 모네, 피카소, 키르히너, 벡크만 등에 이르는 작가의 작품을 소장
<p>오페라 하우스 (Alte Op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0년 건축된 후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로 2차 세계 대전 시 소실되었으나 재건에 성공 • 1981년 100주년을 맞아 시민의 성금으로 재건되었으며, 현재 콘서트홀과 회의장으로 사용 • 세계 수준의 유명 클래식 음악가의 연주회와 오페라, 발레 공연 등이 자주 개최되며, 연간 150회 이상의 공연 개최

<p><하이델베르크 Heidelber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위치한 인구 16만 명의 도시(2021년 말 기준) ◦ Neckar강(江)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12세기에 처음 문헌에 등장 ◦ 기계, 정밀기기, 피혁, 담배, 목제품 등의 제조업 활발, 관광산업 주력 ◦ 하이델베르크성(城)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 		
<p>하이델베르크 성 (Schloss Heidelberg)</p> 	<p>하이델베르크 대학 (Universitaet Heidelberg)</p> 	<p>학생 감옥 (Studentenkarz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4년에 건립 시작, 개축과 증축을 거쳐 현재 규모에 이룸 • 여러 차례 파괴, 복원, 확장돼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등 각 시대의 양식 혼재 • 성 내부 세계 최대 포도주통, 엘리자베스문, 의약박물관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하 대학, 빈 대학에 이어 가장 오래된 독일어권의 대학 • 16세기 종교개혁의 보루, 19세기 독일의 대표 대학 • 7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8년~1914년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가둠 • 감옥에 있었던 학생들이 감옥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림이나 글이 예술작품으로 보호

칼 테오도르 다리 (Karl-Theodor-Bruecke)	성령 교회 (Heiliggeistkirche)	철학자의 길 (Philosophenw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8년에 지어진 하이델베르크의 또 다른 상징으로 현존하는 독일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 • 칼 테오도르가 1786~1788년 동안 개축하여 이름 붙여짐 •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독일군이 다리를 폭파, 전후 1947년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델베르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회 • 주황색 지붕들 사이로 우뚝 솟아오른 성령 교회의 탑은 하이델베르크의 상징 • 1398~1515년에 걸쳐 고딕 양식과 바로크 양식 혼합 • '팔라티나'라고 하는 궁정 도서관으로도 유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철학자들이 즐겨 찾은 길 •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자라며, 온난한 기후로 인해 알짜 꽃이 필 • 하이델베르크 성과 Neckar강 및 구시가지가 한눈에 보임

<뵘르츠부르크 Wuerzburg>

- 독일의 남중부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인구 13만 명의 도시(2022년 말 기준)
- 마인강(江)에 면하여 있는 도시로 원래 켈트족(族)의 정착지였으며, 704년 피르테부르흐(Virteburch)로 문헌에 처음 언급
- 공업도시이자 포도주 산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철도와 수운이 발달

마리엔베르크 요새 (Festung Marienberg)




- 기원전 1000년 켈트족의 성채가 있었던 곳
- 1253년~1719년까지는 뵘르츠부르크 주교의 관저로 사용
- 1867년 요새로 바뀌면서 병영과 창고로 사용됨
- 현재는 박물관, 식당 등이 소재

알테 마인교 (Alte Mainbruecke)



- 뵘르츠부르크에 흐르는 마인강에 놓인 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다리
- 1886년까지 뵘르츠부르크의 유일한 다리

<p>뷔르츠부르크 궁전 (Wuerzburger Residenz)</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 겸임 제후 요한 필립 프란츠와 프리드리히 카를 폰 쉐른보른 형제의 주도 하에 요한 발타자르 노이만에 의해 총 40년 동안 건설됨 • 세계 2차 대전 중에 거의 파괴되었으나 이후 복구 		
<p>황제의 방(Kaisersa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전의 중앙에 위치 • 뷔르츠부르크와 신성로마제국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음 • 티에폴로의 프레스코 천장화 및 화려한 장식으로 유명 	<p>거울의 방(Spiegelkabinet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금과 거울로 장식된 화려한 로코코 양식 • 1945년 야간 폭격으로 완전히 소실, 고문서실의 원래 조각과 오래된 사진으로 복구 	<p>하얀 방(Weißer Ra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부의 옆 첫 번째 방 • 스테코 장식(Stucco - 장벽토, 벽장식, 소석회에 대리석 가루, 찰흙을 섞은 벽 재료)

<p><뤼데스하임 Rüdesheim am Rhe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이름은 뢰데스하임 암 라인(Ruedesheim Am Rhein) ○ 독일의 남서부 헤센주에 위치한 인구 1만 명(2022년 6월 말 기준)의 도시로, 라인강변, 타우누스산맥 기슭에 자리 잡았으며 라인강(江)의 진주라 불림 ○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든 라인 포도주가 유명하며, 포도주 거래의 중심지 역할, 중세의 특징인 목조주택과 옛 숙박업소, 좁은 거리가 잘 보존되어 있음 	
<p>(일명) 참새골목 (Drosselgas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4m의 거리, 17세기~18세기에 걸쳐 지은 독일 고유 건축양식의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Ruedesheim의 최대 명소 중 하나 • 골목 안의 독일 주점은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 • 독일 통일 기념탑(Niederwalddenkmal)까지 케이블카 (Seilbahn) 운행

<p>1871 독일 통일기념탑 (Niederwalddenkm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71년 독일 통일기념으로 세운 기념탑으로 총 높이 38.18m, 무게 총 75t • 독일 황제를 의미하는 게르마니아(Germania) 여신상을 중심으로 구성 • 동 여신상 뒤편으로 제2의 케이블카 운행
<p>생쥐 탑 (Mausestur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뢰데스하임에서 빙엔의 구멍(Binger Loch)이라는 뱃길이 좁아지는 부분에 서 있는 작은 탑으로 통행세를 받던 곳 • 마인츠의 악덕 대주교였던 하토 2세(Hatto II)가 흉년에 곡식 분배를 간청하는 주민을 창고에 모아 불을 질러 죽이자, 엄청난 쥐 떼가 나타나 곡식을 다 먹어 치우고 하토 대주교를 이 성으로 몰아넣은 다음 잡아먹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옴
<p>로렐라이 언덕 (Lorele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연장 1,235km의 라인강 중 가장 강폭이 좁고(160m), 깊은(25m) 지역이며 로렐라이는 절벽의 이름 • 로렐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고운 목소리로 뱃사공을 홀려 배를 난파하게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사실 강폭이 급격하게 좁아지는 커브 구간으로 물결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선박을 운행하기 힘든 사고 다발 지역 • 하이네의 서정시에 프리드리히 질허가 곡을 붙인 '로렐라이'라는 노래로 더욱 유명 • 로렐라이 언덕에는 2009년 우호협약을 맺은 제주시에서 기증한 제주 돌하르방이 세워져 있음

VI. 무역관 정보

□ 무역관 안내

- Messeturm, 33. Fl., Friedrich-Ebert Anlage 49, 60308 Frankfurt
- 전화 : +49-(0)69-242-992-0
 - 메일 : frankfurt@kotra.or.kr

VII. 현지 주요 연락처 및 식당

□ 한국 대사관(영사관)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Stuelerstr. 10, 10787 Berlin
- 전화 : +49-(0)30-26065-0
- 긴급연락처 : +49-(0)173-407-6943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 +49-(0)30-2606551
- 메일 : koremb-ge@mofa.go.kr

○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본 분관

- 주소 : Godesberger Allee 142~148. 3OG., 53175 Bonn
- 전화 : +49-(0)228-94379-0
- 긴급연락처 : +49-(0)170-337-9105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 +49-(0)228-3727894
- 메일 : admin-bn@mofa.go.kr

○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주소 :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M.
- 전화 : +49-(0)69-956752-0
- 긴급연락처 : +49-(0)173-363-4854 (각종 범죄 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팩스 : 069-569814
- 메일 : gk-frankfurt@mofa.go.kr

□ 호텔 및 항공사

○ 호텔

분류	호텔명	주소	전화번호
5성급	Steigenberger Frankfurter Hof	Bethmannstrasse 33	069-21502
	The Westin Grand Frankfurt	Konrad-Adenauer Str. 7	069-29810
	Hilton Hotel Frankfurt City	Hochstrasse 4	069-133800
	Sheraton Frankfurt Airport Hotel	Hugo-Eckener-Ring 15	069-69770
	Fleming's Selection	Eschenheimer Tor 2/	069-4272320

	Hotel Frankfurt-City	Bleichstraße 64-66	
	JW Marriot Hotel Frankfurt	Thurn-und-Taxis-Platz 2	069-2972370
	Frankfurt Marriott Hotel	Hamburger Allee 2	069-79550
	Innside Frankfurt Eurotheum	Neue Mainzer Straße 66-68	069-210880
	Le Meridien Parkhotel Frankfurt	Wiesenhuettenplatz 38	069-26970
	Roomers Hotel Frankfurt	Gutleutstr. 85	069-2713420
4성급	Capri by Fraser Frankfurt	Europa-Allee 42	069-13388 77888
	Maritim Hotel	Theodor-Heuss-Allee 3	069-7578-0
	Moevenpick Hotel Frankfurt City	Den Haager Str. 5	069-7880750
	Mercure Hotel & Residenz Frankfurt Messe	Voltastraße 29	069-7926-0
3성급	Hotel Excelsior	Mannheimer Str. 7	069-227370
	IntercityHotel Frankfurt Hauptbahnhof	Mannheimer Str. 21	069-6599920
	City Hotel Mercator Frankfurt	Mercator Str. 38	069-9434070
	Hotel Monopol	Mannheimer Str. 11-13	069-227370
	Hotel President Frankfurt	Ludwigstraße 27	069-408095-0
	Hotel Motel One Frankfurt-Messe	Europa-Allee 25	069-66124530
2성급	B&B Hotel Frankfurt-Hbf	Mainzer Landstraße 80-84	069-7140190
	ibis Hotel Frankfurt Messe West	Breitenbachstraße 7	069-247070
인근 한인 호텔	Hotel Parkside	Liederbacher Str. 34-36, Frankfurt/M.	069-3006400
	바철평하우스(Batzenhaus)	Koenigsteinerstr. 157, Bad Soden	06196-56490
	송학호텔(Songhak Hotel)	Frankfurter Str. 17, Kriftel	06192-2000133
	Hotel Gaya	Odenwaldstr. 5, Bad Soden	06196-9214431
	Wald Hotel Heidekrug	Koenigsteinerstr. 30, Oberursel	06171-971600

○ 항공사

<주요 직항 및 3국 경유 항공사 리스트>

항공사명	한국 고객센터 전화번호	현지 지점 전화번호	홈페이지
------	-----------------	---------------	------

Korean Airlines 대한항공	1588-2001	0800 000 7482 (무료)	www.koreanair.com
Asiana Airlines 아시아나항공	1588-8000	069-9210-190	www.flyasiana.com
Lufthansa 루프트한자 항공	02-6022-4228	069-86799799	https://www.lufthansa.com /kr/ko/homepage
Air France KLM	02-6105-4037	069-29993770	http://www.klm.com/travel /kr_ko/index.htm
Air France 프랑스 항공	02-6105-4038	069-29993772	www.airfrance.co.kr

자료원 : 각 항공사 홈페이지

○ 항공권 구매

-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편이며, 한인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저렴한 방법임

* www.skyscanner.de, www.flug24.de, https://flug.check24.de 등

- 구주 여행사, 부배 여행사 등 일부 여행사는 다양한 구주 여행상품 제공

<현지 한인 여행사>

여행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가람 여행사	069-2727-7241	www.garam-travel.de/ info@garam-travel.de
구주 여행사	06196-884-6952	www.kuzutour.com/ info@kuzutour.com
도보 여행사	06192-95964-0	www.dobotravel.com/ info@dobotravel.com
부배 여행사	0211-365-160	www.bubetravel.com bubetravel@gmail.com
서왕 여행사	069-2308-23	https://suhwangde.wixsite.com/home suhwangde@hanmail.net
한누리 여행사	06196-481661	hannuri@gmail.com

자료원 :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 주요 식당리스트

○ 한식

소재지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	미스터 리(Mr. Lee)	Gutleutstr. 153, Frankfurt	069-251198

르트 및 인근지역		am Main	
	미소(Misho)	Adalbert Str. 13, Frankfurt am Main	069-97789647
	인스 (Ins Restaurant)	Graf-Zeppelin-Straße 2, Schwalbach am Taunus	01575-3245795
	모모(MoMo)	Mergenthalerallee 55, 65760 Eschborn	06196-7730767
	한국 식당(Restaurant Hankook)	Hainer Weg 100, Frankfurt am Main	069-6500-7185
	바첸하우스(Batzenhaus)	Koenigsteiner St. 157, Bad Soden/Ts.	06196-23430
	중화루(Joong Wha Ru)	Ober d. Röth 2, Schwalbach am Taunus	06196-9502425
	도모(Domo)	Westerbachstrasse 23, Kronberg im Tanus	06173-78898
	이도(IDO)	Cretzmarstr.6a, Sulzbach (Taunus)	06196-7672250
	산마루(Sanmaru)	Ginnheimer Landstr. 183, Frankfurt am Main	069-9511-2750
	하이데크룩(Heidekrug)	Königsteiner Str. 30, Oberursel	06171-97160
	강나루(Gang Na Ru)	Mainzer Landstr. 791, Frankfurt am Main	069-629090
	비비큐(BBQ) 치킨	Schillerstraße 4, Frankfurt am Main	069-21007588
	치킹(Chicking)	Hortensienring 13, Frankfurt am Main	069-4908-5133
베를린	서울관(Seoulkwan)	Schmiljanstraße 25, Berlin	030-852-6262
	호도리 (Hodori)	Goebenstraße 16, Berlin	030-215-3562
뮌헨	서울(Seoul)	Leopoldstr. 120, Muenchen	089-348104
	문(Mun Restaurant)	Innere Wiener Straße 18, Muenchen	089-6280-9520
	아리수(Arisu)	Triftstraße 1, Muenchen	089-2424-3594
함부르크	김치식당	Heussweg 10, Hamburg	040-493871
	한미(Hanmi)	Kleine Seilerstr. 1, Hamburg	040-7801-0777

○ 독일식 및 양식

소재지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Apfelwein Dax	Willemerstraße 11, Frankfurt am Main	069-616437
	Tigerpalast-Restaurant	Heiligkreuzgasse 16, Frankfurt am Main	069-9200220
	Café Hauptwache	An der Hauptwache 15, Frankfurt am Main	069-21998627
	Paulaner am Dom	Domplatz 6, Frankfurt am Main	069-20976890
	Zum Gemalten Haus	Schweizer Str. 67, Frankfurt am Main	069-614559
	Mosebach	Sandweg 29, Frankfurt am Main	069-4930396
	Apfelwein Wagner	Schweizer Straße 71, Frankfurt am Main	069-612565
	Block House	Europa-Allee 12-22, Frankfurt am Main	069-78079474
베를린	Brauhaus Georgenbraeu	Spreeufer 4, Berlin	030-2424244
	Restaurant Remise Schloss Glienicke	Königstraße 36, Berlin	030-8054000 ↑
	Tiroler Bauernstuben	Heerstraße 137, Berlin	030-3009-9466
	Gaffel Haus Berlin	Dorotheenstraße 65, Berlin	030-3101-1693
뮌헨	Acquarello	Muehlbauer Str. 36, Muenchen	089-4704848
	Bayerischer Hof	Promenadenplatz 2-6, Muenchen	089-2120-0
	Halali	Schönfeldstraße 22, Muenchen	089-285909
	Hilton Munich Park	Am Tucherpark 7, Muenchen	089-38450
	Hofbraeuhaus Muenchen	Platzl 9, München	089-290136100
	Augustiner am Dante	Dantestr. 16, Muenchen	089-15780801
함부르크	Anno 1905	Holstenplatz 17, Hamburg	040-4392535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 이탈리아 식당

소재지	레스토랑 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Ristorante Collosseo	Mörfelder Landstr. 122, Frankfurt	069-614386
	Villa Leonhardi	Zepplinallee 18, Frankfurt	069-7898847
	Nummer 16	Löwengasse 27a, Frankfurt	069-464591
	Tridico	Friedrich-Ebert-Anlage 35-37, Frankfurt	069-78809333
	Mediterraneo	Platz der Einheit 1, Frankfurt	069-74309815
베를린	Luardi	Meinekestraße 24, Berlin	030-88718468
뮌헨	Ristorante Galleria	Sparkassenstr. 11, Muenchen	089-297995
함부르크	Ristorante Palazzo	Rothenthorstrasse 185, Hamburg	040-4102277
	Capriccio	Thielbek 12, Hamburg	040-18079219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 일식 및 중식 가격의 경우 한국의 2배 수준이며, 이외의 레스토랑 등은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비슷한 수준

소재지	레스토랑 명	주소	전화번호
프랑크푸르트	Parthenon(그리스)	Kennedyallee 34, Frankfurt	069-635419
	Iwase(일식)	Vilbeler Strasse 31, Frankfurt	069-283992
	Sushimoto(일식)	Konrad-Adenauer Str. 7, Frankfurt	069-1310057
	Pak Choi(중식)	Elbestraße 12, Frankfurt	069-78988418
뒤셀도르프	ManThei Sushi(일식)	Bachstrasse 1, Duesseldorf	0211-9661633
	Sila Thai(타이)	Bahnstraße 76, Duesseldorf	0211-8604470

□ 주요 쇼핑센터

- 독일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영어가 통용되고 소액의 경우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이나 출장자들이 쇼핑하기에는 좋은 환경
- 또한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고 일부는 호텔과 직접 연결

-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마이 차일(My Zeil)’이 대표적인 쇼핑센터이며, 괴테슈트라쎄(Goethestrasse)에는 주요 명품점 소재

<프랑크푸르트>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Galeria Kaufhof (백화점)	Zeil 116-126, 60313 Frankfurt/Main	069-21910	월-토: 9:30~20:00
My Zeil (패션, 각종 잡화)	Zeil 106, 60313 Frankfurt/Main	069-297239-7 0	월-수: 10:00~20:00 금-토: 10:00~21:00
명품 거리	Goethestr. 60313 Frankfurt/Main	-	월-토: 10:00~18:00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함부르크>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Hanseviertel (쇼핑센터)	Grosse Bleichen 30/36, 20354 Hamburg	040-80802020	월-토: 10:00~19:00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쇼핑센터가 소재)
Alstertal-Einkaufszent- rum	Heegbarg 31, 22391 Hamburg	040-6116770	월-토: 10:00~20:00
Alsterhaus(백화점)	Jungfernstieg 16-20, 20354 Hamburg	040-359010	월-토: 10:00~20:00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뮌헨>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Fuenf Hoefe (쇼핑몰)	Theatiner Str. 15, 80333 Muenchen	089-2444 9580	월-금: 10:00~20:00 토: 10:00~18:00
명품 거리	Maximilianstr., 80539 Muenchen	-	월-금: 10:00~19:00 토: 10:00~18:00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베를린>

쇼핑 센터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시간
KaDeWe 백화점	Tauentzienstr. 21-24,	030-21210	월-목, 토: 10:00~20:00

(Kaufhaus des Westens)	10789 Berlin		금: 10:00~21:00 베를린 내 최고의 명품 백화점
Designer Outlet Berlin	Alter Spandauer Weg 1, 14641 Wustermark OT Elstal (베를린 근교)	033234-9040	월-토: 10:00~20:00 Aigner, Alba Moda, Doce & Gabbana 등 각종 디자이너 아웃렛 매장)
Galleries Lafayette	Friedrichstr. 76-78, 10117 Berlin	030-209480	월-토: 11:00~19:00
명품 거리	Kuerfuerstendamm, 10711 Berlin	-	월-토: 10:00~20:00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